

윤관철

본회 연구위원, 본지 편집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바위거인을 기다리며

변화의 시대를 헤어 나가면서 우리는 리더를 대망한다.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나타나 우리 국민의 전체 역량을 지휘하여 효과있게 결집된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런 리더의 탄생을 위해 우리 헌법이 마련해 놓은 희망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리더는 두 가지에서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구성원이 각기 알고 있는 각 분야의 현실을 그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직접 몸으로 겪는 사람들보다 더 꿰뚫어 알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일에 산만히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통일된 원칙과 계획에 의해 일을 해 나간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별적 현실과 통합적 비전,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능력을 보여 줄 때, 우리는 사무실과 공장에서 비생산적인 정치 이야기를 그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불안함을 버리고 본연의 일로 돌아가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리는 불안하다. 그 많은 후보의 그 많은 TV 인터뷰 후에도 정작 검증된 것은 별로 없는 듯 하다. 특히

## 2 바위거인을 기다리며

우리는 대중영합을 위하여 줄속으로 짜깁기한 정책의 나열을 보았다고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통합적 비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여 불안해 한다.

어쩌면 후보들은 나름대로 이런 게임을 힘들어 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간의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비효율적인 '대 국민 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느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솔직한 게임의 목적은 '내가' 대통령 되고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것이다. 게임의 방법은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낫다'고 -- 그게 무엇이든 간에 -- 유권자가 믿게 하는 것이다. 전에는 관광버스를 내고 밥을 사고, 돈봉투를 뿌리며 세몰이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국민들이 똑똑한 척을 하며 정책을 말하라고 인터뷰 마이크를 들이대니, 정책 과외공부를 해 가지고 얼굴에 조명화장을 한 후 까다로운 문답을 해야 하게 된 것 뿐이다. 주먹으로 해도 되는 일을 거추장스러운 점잔을 빼며 말로 하는 셈 아닌가? 어차피 선거야 기싸움이며 세싸움이며, 바람과 조직과 돈과 마타도어와 인신비방이 기본적 무기인 터인데 빙빙 돌려 말싸움을 하다니.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는 말들이 너무 성의가 없고 임시방편적이다. 대통령을 합중연황이니 하는 정치적 작전으로 되어보려 하는 모습들이니 다르게 보아주기가 도무지 쉽지 않다. 상대의 흠집도 찾아 폭로하고 여론조사도 왜곡하여 어떻게든 국민에게 자기가 최고라는 '진실'을 알리려는 충심 하나만은 봐 주어야 할 것인지.

누구나 아는 이야기에 바위거인 이야기가 있다.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마을 앞산의 모습을 닮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리라는 전설을 마음에 품고 기다린다. 많은 거짓 지도자를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생을 기다린 늙은 어니스트.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바로 어니스트가 그 내면에 축적한 모든 소망의 힘에 의하여, 그리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진정한 바위거인으로 나타난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민이 바라는 정치와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논의를 10월 11일의 기독교문화회에서 하기로 하고 그 원고를 이 책에 특집으로 모았다.

아무리 오늘 나타난 후보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의 불안을 덜어주는 리더가 못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진지한 희망이 아무진 꿈이나 떡없는 김칫국에 빗대어진다 해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위거인을 기다리는 마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